

44 때로는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오늘날 국제 콘퍼런스에서 ‘뷰카(VUCA)’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뷰카는 오늘날의 세계 상황을 잘 드러내는 네 가지 영어 단어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이니셜을 조합한 말이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다.

• 단순하지 않은 것,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석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항목에서 확인한 대로, 성급하게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의 근원이 된다. 이때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판단을 보류하는 것을 에드문트 후설은 ‘에포케(epoche)’라고 했다. 에포케는 고대 그리스어로 ‘정지, 중지, 중단,’을 의미한다.

• 그렇다면 에포케를 아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에포케가 다양한 내용을 시사해 주는 사고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타자 이해의 어려움’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을 꼽고 싶다. 후설이 반드시 그렇게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에포케는 결국 ‘당신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 번 보류해 보십시오.’라는 뜻이다. 그 말대로 따르면 어떤 점이 좋을까?

•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자신에게 보이는 세상과 상대에게 보이는 세상은 크게 다를 수 있다. 그때 양자가 모두 자신의 세계관에 강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 어긋난 차이가 해소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지금 시대에는 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기회와 자리 자체를 폭력으로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들은 다시 말해 대화에 절망하고 있다. 왜 대화에 절망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가 개개인의 가치관을 너무나 완고하게 주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서로 연결되고 맞물려 역동적으로 변화해 나간다. 그러한 사회에서 자신이 보고 있는 세계가 객관적 사실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믿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 우리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세계관은 애초에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그 세계관을 확신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않는, 이른바 어중간한 경과 조치로 일단 잠시 멈춰 보는 중용의 자세가 바로 에포케다. 그러니 이 에포케의 사고관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더더욱 필요한 지적 태도가 아닐까?